

채탄과 도모코 제도

1916 년 구시로에서 대규모 석탄 채굴이 시작되었으며, 이 지역의 태평양 탄광은 일본 최대의 탄광이 되었습니다. 석탄 채굴은 아세틸렌가스를 사용한 카바이드램프 불빛 아래에서 깊은 지하의 탄층을 파내는 고된 육체노동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도모코’라고 불리는 작업 집단을 조직했습니다. 각 집단에서는 감독 역할을 하는 선배 광부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신입 광부는 ‘도모코’에 들어가기 전에 3 년간 제자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시작되었지만, 기술 공유를 촉진하고 서로 돕도록 장려하는 유사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도모코’의 광부들은 돈을 모아서 부상, 재해, 탄광 폐쇄 때에는 서로를 도와주고,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 비용에 충당했습니다.

신입 구성원은 정식 의식을 통해 동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의식에서는 결속의 상징으로 술잔을 공유하고 다른 성원들과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도모코’ 구성원의 이름과 주소는 종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명부를 통해 구시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모코 제도는 1930 년에 이 탄광에 도입된 기계화와 사회보장의 발달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